

글과 그림의 서사: 체계기능언어학으로 본 ‘확장’ 그림책 번역*

성 승 은
(한국외국어대)

1. 서론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서사를 이루어 간다. 글과 그림은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상호 보완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는 언어적으로만 전달되고, 어떤 의미는 시각적으로만 전달된다. 그림책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동안 그림과 글의 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본고는 그림책 중에서도 그림이 글을 지원하면서 함께 서사를 구성하는 ‘확장’ 그림책(Nikolajeva & Scott 2006: 8-12)의 번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확장 그림책은 그 성격상 글과 그림을 함께 보는 책이므로 만약 누군가 읽어 주는 소리만 듣는다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아동문학 번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빈번히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명시

*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화(explicitation)이다(House 1997; Stolze 2003; Lopez 2006; Frank 2007; Shih 2008). 그런데 확장 그림책에서 번역을 통해 그림의 내용을 글에서 명시화하면 독자가 글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 그림책 번역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독자가 글과 그림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구성해 나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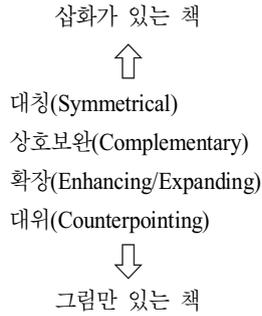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특히 확장 그림책의 글의 번역을 고찰하여, 시각적 코드와 언어적 코드 사이의 상호작용이 번역과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번역의 변이(shifts)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체계기능언어학을 사용하기로 한다. 체계기능언어학은 의미를 경험적·관계적·문맥적 의미의 다면체적인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의미가 어휘 문법 차원에서의 언어 자원들을 통해 나타나는 체계로 보고 있다(김미라 2012: 54-59). 본고에서 ST와 TT 간 의미 차이를 보는 데에 체계기능언어학이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ST와 TT 간 어떠한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후 의미의 차이가 그림의 명시화와 관련이 있는지 보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림책의 종류

니콜라예바와 스콧(Nikolajva & Scott 2006: 8-12)은 그림과 글과의 관계를 삽화가 있는 책(illustrated book)과 그림만 있는 책(picture narrative book) 사이의 스펙트럼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그림책에서의 글과 그림의 관계



(니콜라예바와 스콧 2006: 12에서 재구성)

위 그림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글이 많아지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칭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며 중복되는 서사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글이 그림이 가진 색감과 형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때로 글이나 그림의 어느 한쪽이 더 자세히 묘사된다. 현은자 외(2008: 64-65)에서는 대칭을 다시 그림이 글보다 단순화된 경우와 그림이 배경이나 활동을 더 상세히 묘사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잘자요 달님』(*Good Night Moon*) 등이 대칭 그림책이다(현은자 외 2008: 64-65).

글과 그림책이 상호보완적인 그림책으로는 『피터 래빗 이야기』(*Tales of Peter Rabbit*)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상호보완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서사를 이루기 때문에 글과 그림을 함께 읽어야만 정확한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터 래빗 이야기』에서는 엄마 토끼가 네 마리의 아기 토끼들에게 맥그리거 씨의 정원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데, 그림을 보면 아기 토끼 세 마리는 엄마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지만 피터는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자는 그림을 보면서 피터가 엄마 이야기를 듣지 않아 나중에 곤경에 빠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현은자 외 2008: 70).

확장 그림책의 대표적인 예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Where the Wild Things Are*)이다. 이 책의 글을 읽으면 이야기의 대강을 알 수 있지만 내러티브

의 어조와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그림이다. 주인공 맥스의 첫 번째 외부로의 여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현하여 이야기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글 없이 그림만 있는 부분을 통해 글의 이야기를 확장해 간다(Nikolajeva 2005: 228). 확장 그림책에서는 시각적 서사가 언어적 서사를 지원하며 언어적 서사는 시각적 서사에 의존한다(Nikolajeva & Scott 2006: 12).

대위에서는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예로 팻 허친스(Pat Hutchins)의 『로지의 산책』(*Rosie's Walk*)이 있다. 글에서는 로지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림에서는 여우가 로지를 잡아먹기 위해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번번이 좌절하고 결국 벌에 쫓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글에서 보이는 평화로운 모습과 그림의 모습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사를 이룬다(Nikolajeva & Scott 2006: 17). 니콜라예바는 대칭적인 책이 대위적인 책보다 열등하지 않으며 단지 매체 사용의 구상이 다를 뿐이라고 강조한다(2005: 228-229).

한편 루이스(Lewis 2001: 52)는 그림책을 위처럼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림은 글의 반복, 확장, 비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 책에서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글과 그림의 다양한 관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2. 그림책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

그림책 번역의 연구에서는 글과 그림의 번역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번역서에서 그림을 명시화한다는 연구(신지선 2005)도 있으나 지나친 명시화는 독자의 해석의 여지를 방해한다는 연구(Ippolito 2008; Oittinen 2008)도 있다. 오설리번(O'Sullivan 2006)은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개할수록 번역이 더 어려워진다고 역설하면서 ST가 의도적으로 남겨 둔 간극이 번역서에서 명시화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한다. 이성엽(2014: 125)은 그림책이 글과 그림의 합을 넘어서는 제3의 텍스트임을 강조한다.

피셔(Fischer 2008)는 ST와 TT의 그림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이 글과 갖는

관계를 논하고 있으며, 번역서의 출판사 방침에 따라 TT의 아동 이미지가 ST의 아동 이미지와 달라지면서 그림도 달라지는 양상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 (Español Castellà 2008).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어 아동이 즐겁게 책을 읽을 여지가 축소된다고 주장하며 그림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 외에 김도훈 (2013)은 번역서에서의 그림의 현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승은(2013)은 글에서는 TL이 문화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림은 SL이 배경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2.3. 체계기능언어학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크게 경험적(experiential), 관계적(interpersonal), 문맥적(textual) 의미로 나누며¹⁾ 이를 어휘 문법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험적 의미는 개인이 경험하는 세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주로 참여자(participants)와 프로세스(process)를 중심으로 하는 동사성 체계(transitivity system)로 설명한다. 관계적 의미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간의 사회적 거리 및 파워 관계나 또는 화자의 개인적인 태도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 의미를 말한다. 관계적 의미는 서법(mood), 양상(modality), 평가어(appraisal) 등을 통해 구현된다. 문맥적 의미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를 엮어가는 방식으로 이끔부(Theme)와 딸림부(Rheme)²⁾ 및 결속성(cohesion)을 통해 주로 드러난다(Butt et al. 2000).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경험적 의미는 동사성 체계를 통해 드러나는데, 동사성 체계는 참여자, 프로세스, 상황(circumstance)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Halliday 1994: 107). 이중 프로세스는 “eat”, “kick” 등 행위를 나타내는 물질적 프로세스(material process), “think”와 같이 인간의 정신 사고를 나타내는 정신적 프로세스(mental process), “say”, “command” 등의 구어적 프로세스(verbal

1)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질 사이의 연관성을 논하는 논리적 의미(logical meaning)도 포함하나 본고에서는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또한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리적 의미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2) Theme, Rheme의 번역은 김미라(2012)를 따르기로 한다.

process), 관계(being)와 관련 있는 관계적 프로세스(relational process), “listen”, “laugh”와 같이 사람의 의식적인 신체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적 프로세스(behavioral process), 존재(existence)와 관련 있는 존재적 프로세스(existential process)의 6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성격에 따라 프로세스의 참여자는 행위자(Actor, 물질적 프로세스), 감지자(Sensor, 정신적 프로세스) 등으로 분류된다. 상황은 참여자와 프로세스 이외에 경험적 세계를 구성하는 부사구, 형용사구 등을 말한다.

관계적 의미는 서법, 양상, 평가어, 호칭 등으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담화 참여자 간 서법의 사용을 관찰하면 이들 사이의 사회적인 거리나 관계를 알 수 있다. 양상은 명제에 대한 가능성(probability)과 빈도(usuality), 의무(obligtion)와 의향(inclination)을 표현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게는 ‘예’와 ‘아니오’ 사이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Thompson 2014: 69).

평가어(Martin & White 2005) 역시 체계기능언어학에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자원으로 소개된다. 평가어 이론은 화자의 평가나 태도가 양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때로 형용사와 같은 일반 어휘에 의해서도 표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이창수 2009: 183). 평가어는 크게 사람이나 행위에 대한 감정 및 평가나 사물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태도(attitude), 이러한 태도의 정도를 표현하는 강도조절(gradation),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갖는 입장을 말하는 개입(engagement)으로 크게 나뉜다. 개입은 주어진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입장을 표현하는 언어 자원으로 “I believe that ...” “I am not sure about ...” 과 같이 명제에 대하여 화자가 취하는 포지션을 의미한다.

문맥적 의미는 경험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가 매끄럽게 연결되어서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절의 시작부분을 일컫는 이끔부와 나머지인 딸림부로 이루어진다. 이끔부는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저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다(Baker 1991: 121; 최성희 2013: 363). 접속사와 같이 절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자원 및 관련 어휘의 반복, 생략, 대체를 아우르는 결속성도 문맥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포함된다(Butt et al. 2000; Thompson 2014).

이제 아래에서는 ST와 TT를 비교하여 TT의 의미가 ST와 어떻게 다른지도 출해 보고, 특히 어떠한 차이가 그림과 글의 서사와 관련되는지 보기로 한다.

3. 분석대상 텍스트 및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 텍스트로 배빗 콜(Babette Cole)의 확장 그림책 3권을 선정하였다. 배빗 콜은 확장 그림책의 대표적인 작가로 글보다 그림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림이 글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림이 없다면 그의 책들에 녹아 있는 유머와 아이러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다(Nikolajva & Scott 2006: 20). 배빗 콜은 인터넷 서점 기준 영한 번역서가 10여 권에 이르지만 본고의 목적에 따라 확장 그림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책들만 선정하였다. 아래 책들은 모두 니콜라예바와 스콧(2006)에서 확장 그림책으로 소개되었다.

1. Princess Smartypants. 1997. Puffin Books.
내멋대로 공주. 노은정 역. 2005. 비룡소.
2. Princess Smartypants breaks all the rules. 2009. Puffin Books.
내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 이경혜 역. 2010. 살림어린이.
3. The trouble with mom. 1984. Putnam Juvenile.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마법사. 김수희 역. 2008. 어린이작가정신.

위 번역서는 각각 출판사와 번역사가 다르므로 다양한 번역 방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멋대로 공주』와 『내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는 동일한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 시리즈이며, 암전하고 순종적인 공주가 아닌 주체적인 공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페미니스트 분석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마법사』는 주인공의 엄마가 마법사여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글보다는 그림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ST와 TT를 비교하여 번역 변이를 살펴보고, 분석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접근을 따르기로 하겠다. 여기서의 변이는 ST에서 TT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작은 언어적 변화를 의미한다(Munday 2001: 60). 먼저 3권의 ST와 TT를 분석하여 번역 변이를 고찰하고, 그 후 고찰된 변이 중에서 그림의 내용을 첨가하거나 더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ST와 TT는 그림이 모두 동일하다.

4. 분석 결과

4.1. 내멋대로 공주

내멋대로 공주는 결혼하지 않고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들과 살고 싶으나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이겨 자신이 내주는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왕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왕자들이 줄이어 공주의 과제를 해내고자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가자 공주는 흐뭇해하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뺨질이 왕자가 나타나 어려운 과제들을 척척 해낸다. 공주가 뺨질이 왕자에게 키스하자 왕자는 두꺼비로 변하여 공주의 성을 떠나고 공주는 예전과 같이 자신의 애완동물들과 행복하게 산다.

ST와 TT를 비교한 결과 발견된 번역 변이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동일한 어휘 문법 자원이 2회 이상 표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She called on Prince Vertigo to rescue her from her tower”의 번역인 “어질땡땡 왕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험한 들판을 마구 달려야 했고”라는 부분에서는 프로세스(“called on”)와 참여자(“she”)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으며, 동시에 이끔부가 변경(“she” → “어질땡땡 왕자는”)된 것으로 보았다.

〈표 1〉 『내멋대로 공주』의 번역 변이

언어 자원	변경	첨가	삭제
프로세스	1	2	9
참여자	1	1	9
상황	0	2	0
양상	9	0	0
평가어(태도)	0	2	0
평가어(강도조절)	0	2	0
서법	1	0	0
연결 관계 ⁴⁾	1	6	1
이끔부 변경	11	-	-

4) 본고에서 연결 관계는 Thompson(2014: 225)을 따라 접속사 이외에도 연결 어미와 절 및 문장 간 흐름을 연결하는 언어적 자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표에서 변이는 ST에서 TT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작은 언어적 변화를 말한다. 변이는 ST의 언어적 의미가 TT에서 바뀌는 '변경', ST에는 없는 내용이 더해지는 '첨가', ST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는 '삭제'로 분류해서 보기로 한다. 프로세스·참여자·상황은 동사성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주로 경험적 의미와 관련되며, 양상·평가어·서법은 관계적 의미와 연동된다. 연결 관계와 이끔부 변경은 문맥적 의미와 연동된다. 이외에도 지시 대상(reference) 번역을 고찰하여 ST와 TT의 결속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을 예시와 함께 더 자세히 보고, 마지막으로 이들 언어 자원이 어떻게 ST와 TT 간 의미의 차이를 만드는지 논하기로 한다.

<동사성 체계>

번역서에서는 프로세스와 참여자, 상황을 포함한 동사성 체계 변이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표에서와 같이 프로세스와 참여자 삭제가 9회씩 발견되어 다른 변이에 비해 빈도가 높다. ST의 글과 그림을 보면 공주가 자신과 결혼하려는 왕자들 각각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왕자들은 이를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ST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공주가 왕자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기술되어 있다.

She asked Prince Rushforth to feed her pets. ...[중략]... She asked Prince Pelvis to a roller-disco marathon.

즉, ST에서는 공주는 그저 왕자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만 하고, 그림을 봐야 왕자들이 힘들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없이 글만 보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것을 듣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TT에서는 참여자인 공주(Sayer)와 프로세스(Verbal Process)가 삭제되어 주어가 왕자로 바뀌어 있고, 왕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만 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ST1: She asked Prince Rushforth to feed her pets.
 TT1: 허둥지둥 왕자는 공주가 아끼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했지요.

TT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기술이 모든 왕자들에게 적용되어서 ST의 프

로세스와 참여자가 생략되고 공주가 부탁 혹은 요구하는 내용 대신 왕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의무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TT의 글에서는 왕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ST보다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상>

동사성 체계의 변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상의 변이가 관찰된다. 번역서에서는 왕자들이 각종 어려운 작업을 해야만 했다고 기술함으로써 ST에서 공주가 ‘제안’한 것이 TT에서는 ‘의무’로 나타난다. 바로 위의 예를 보자면 ST에서는 공주가 자신이 아끼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왕자에게 부탁하는데 TT에서는 왕자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했”다고 표현되었다.

<평가어>

ST2: “That’s that then,” said Smartypants, thinking she was safe.

TT2: “이제는 됐겠지?” 내멋대로 공주는

<이꿈부 변경>

표 1을 보면 이꿈부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역시 동사성 체계의 변이와 관련이 있다. ST에서는 공주가 이꿈부로 계속 등장하여 9명의 왕자들에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공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가 뽀질이왕자가 등장하면서는 그가 이꿈부로 등장하여 이제는 뽀질이 왕자가 이전 왕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척척 해내는 이야기로 전개가 달라진다. 그런데 TT에서는 이야기 초반부터 9명의 왕자가 각각 이꿈부로 등장하여 ST와 다르게 각 왕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ST4: She sent Prince Bashthumb to chop some firewood in the royal forest.

TT4: 어설프네 왕자는 왕실의 숲에 가서 뽀나무를 해 와야 했어요.

위 예를 보면 ST에서는 공주가 이꿈부로 제시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TT에서는 “She sent”가 생략되면서 “어설프네 왕자는”이 이꿈부로 변경되어 있다. TT에서는 이처럼 각 왕자가 이꿈부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그림에서는 각 왕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고전하는 모습을 상세히 보여준다. TT의 글에서의 이러한 변이에 따라 TT에서는 글과 그림이 더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연결 관계>

여기서의 연결 관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속사 이외에도 연결어미와 글의 흐름을 잇는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번역서에서는 두 문장 간 접속사가 첨가되는 경우가 6회 발견되었다. 경우에 따라 연결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1회 있고, 생략되는 경우도 1회 발견되었으나 첨가된 경우가 더 많았다.

ST5: She commanded Prince Swimbladder to retrieve her magic ring from the goldfish pond. None of the princes could accomplish the task he was set.

TT5: 허푸허푸 왕자는 금붕어 연못에 빠진 요술 반지를 꺼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공주가 시킨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지시 대상 번역>

지시 대상 중 Princes Smartypants가 ST와 TT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ST에서는 “Princess Smartypants” 혹은 “Smartypants”가 총 5번 있었고, 대명사 “she”로 대체된 경우는 총 15회 발견되었다. 이는 TT의 11번에 비해 빈도가 훨씬 높는데, 이것은 ST에서 공주가 왕자에게 부탁하는 부분을 TT에서는 모두 생략했기 때문이다.

〈표 2〉 『내멋대로 공주』에서 “Princess Smartypants”의 번역

분류	ST	TT
고유명사 반복 (ST: “Princess Smartypants”/“Smartypants” TT: “내멋대로 공주”)	5	4
일반명사 (“공주”)	0	6
대명사	15	0
생략	0	1
계	20	11

ST의 이야기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marry”이다. 이 어휘가 실제 발생한 경우는 2회이지만 표3와 같이 관련된 어휘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TT에선 이들 관련 어휘가 모두 “결혼”으로 번역되어서 TT는 ST 대비 어휘 반복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3〉 『내멋대로 공주』에서 “Marry” 관련 어휘의 번역

ST	TT
Princess smartypants did not want to <u>get married</u> .	내멋대로 공주는 <u>결혼</u> 하고 싶지 않았어요.
... all the princes wanted her to be <u>their Mrs.</u>	...모든 왕자들이 <u>결혼</u> 하고 싶어했지요.
<u>Suitors</u> were always turning up at the castle...	어느새 성은 공주와 <u>결혼</u> 하려고 찾아온 왕자들로 ...
...whoever accomplishes the tasks that I set will, as they say, <u>win my hand</u> .	내가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u>결혼</u> 하겠어요.
...none of them wanted to <u>marry</u> Smartypants.	...아무도 내멋대로 공주와 <u>결혼</u> 하겠다고 나서지 않게 되었어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TT의 텍스트가 ST와 비교하여 달라진 의미를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경험적 의미는 ST에서 내멋대로 공주가 왕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TT에서는 왕자들이 의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ST에서는 공주가 담담히 부탁하는 내용이 TT에서는 공주가 어려운 일을 시켜서 왕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그림에서 왕자가 고전하는 모습과 더 일치한다. 관계적 의미는 TT의 글에서는 평가어가 첨가됨으로써 독자에게 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국 그림의 내용을 글에서 다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맥적 의미(Thompson 2014: 215-240)에서는 TT의 글에서는 연결 관계를 첨가함으로써 ST보다 글의 연결이 더 명시적으로 표현되었고, 어휘 반복이 ST보다 많았다. 이것은 어린 아동 독자를 고려한 번역의 결과라고 하겠다(Thompson 2014: 229).

4.2. 내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

『내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는 내멋대로 공주가 엄마의 성화로 우아한 공주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는 이야기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아 교장에게 야단맞고 갇히지만 큰망치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다른 공주들에게 자신과 같이 사는 방법을 알려 주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다. 이 번역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이가 발견되었다.

〈표 4〉 『내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의 번역 변이

언어 자원	변경	첨가	삭제
프로세스	5	1	0
참여자	4	1	0
상황	0	1	0
평가어(태도)	0	1	0
평가어(강도조절)	0	2	0
서법	4	0	0
양상	0	0	0
연결 관계	1	3	2
이끔부 변경	1	-	-

<동사성 체계>

표4를 보면 프로세스와 참여자 변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프로세스 변형이 5회인데 아래에 예를 소개한다.

ST6: “Look at my girls. That wretched dragon spooked their coaches, and most of them ended up in the moat.”

TT6: “저 공주들을 좀 보라. 내가 타고 온 고약한 짐승이 말들을 놀라게 하는 바람에 다들 흙탕물을 뒤집어썼잖니.”

ST에서는 해자에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TT에서는 공주들이 흙탕물을 뒤집어썼다고 표현하고 있어 프로세스가 달라졌다. 그림을 보면 공주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모습을 하고 있어 TT의 글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이로 글과 그림의 내용이 더 일치하게 되었다.

<평가어>

ST7: “Uh, I’ll have to give it a try then,” said Smartypants.

TT7: “그렇다면 가진 가야겠군요.” 내멋대로 공주가 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 예에서는 “폴 죽은 목소리로”가 첨가되어 공주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ST8: “And most importantly,” laughed Princess Smartypants, “lesson five, let’s break all the rules.”

TT8: 내멋대로 공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뽀뽀뽀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제 5장 모든 규칙을 깬다.”

위에서는 평가의 강도가 첨가되었다. 즉, 강도조절(gradation) 중 세기(force)가 부사구로 첨가되었다. 강도조절은 “quite pretty”와 같이 태도에 대한 세기(force)나 “kind of tired”와 같이 대상의 순도를 나타내는 초점(focus)으로 나뉜다. 내멋대로 공주가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TT에서 첨가된 것이다.

<서법>

이 번역서에서는 서법 변경이 4회로 다른 변이에 비해 빈번한 이유는 공주가 “내멋대로 공주의 수업”을 소개하면서 아래 예와 같이 ST의 명령문이 TT에서는 모두 평서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ST9: Lesson two, learn to govern your own kingdom.
 TT9: 제 2장, 자기 왕국을 직접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위와 같은 변이는 TT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영어로 쓰인 요리책의 경우 명령문이 빈번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평서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겠다.

<연결 관계>

ST10: Day five, flying and wand-waving.
 TT10: 다섯째 날, 높이 날아올라 요술방망이 흔들기.

ST에서는 “flying”과 “wand-waving”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TT에서는 먼저 날아서 그 후에 요술방망이를 흔드는 것을 의미하는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다.

ST11: “We’re bored with being fairy princesses.” “OK,” said Princess Smartypants. “Lesson one, stop waiting for ...”
 TT11: “암전한 공주 노릇은 이제 질렸어”. 같은 방 공주들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내멋대로의 공주 수업을 시작해 볼까. 제 1장. 어느 날 나타나 ...”

위 예는 접속사나 연결어미는 아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 절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아. 제 1장. 어느날 ...”이라고 해도 되는데 더 명시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첨가되었다.

<지시 대상 번역>

번역서를 통해 드러난 “내멋대로 공주”라는 지시어의 번역은 ST와 TT에서

각각 아래와 같았다.

〈표 5〉 『내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에서 “Princess Smartypants” 번역

분류	ST	TT
고유명사 반복 (ST: “Princess Smartypants”/“Smartypants” TT: “내멋대로 공주”)	6	5
일반명사 (“공주”)	0	0
대명사	0	0
생략	0	1
계	6	6

ST에서는 “Princess Smartypants” 혹은 “Smartypants”가 총 6회 발견되었으며, TT에서는 이를 “내멋대로 공주”로 5회 번역하였고, 생략된 경우가 1회 있었다. 생략된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나타난 현상이다. 요컨대 ST와 TT에서 주인공을 지시하는 빈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 분석을 기반으로 ST 대비 TT에서 보이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우선 경험적 의미에서 참여자와 프로세스가 일부 변경되면서 이야기 초반에서 공주들이 해자에 빠진 장면 대신 흙탕물을 뒤집어 쓴 장면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그 결과 글의 내용이 그림과 더 일치하게 되었다. 관계적 의미는 해설자와 독자 및 공주와 다른 공주들과의 대화를 분리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해설자와 독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주의 심정을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고(“풀 죽은 목소리로”) 있다. 내멋대로 공주와 다른 공주와의 관계에서는 내멋대로 공주가 다른 공주들에게 말할 때 더 강조하거나(“뒤풀이 해도”) 연결 관계를 첨가함으로써(“그렇다면 내멋대로의 공주 수업을 시작해 볼까.”) 자신의 얘기를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문맥적 의미에서는 내멋대로 공주와 다른 공주들과의 대화에서 연결 관계가 첨가되어 연결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3.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마법사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엄마가 마법사여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엄마가 마법사라는 이유로 자신과 어울리는 것을 친구들의 엄마가

못마땅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는 얘기이다. 번역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이가 발견되었다.

〈표 6〉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마법사』의 번역 변이

언어 자원	변경	첨가	삭제
프로세스	3	0	0
참여자	1	0	0
상황	0	1	0
평가어(태도)	2	1	0
평가어(강도조절)	0	4	0
서법	1	0	0
양상	0	0	0
연결 관계	1	1	0
이끔부 변경	0	-	-

<동사성 체계>

동사성 체계에서는 프로세스 변경이 3회 나타났고, 이에 따른 참여자 변경도 발견되었다.

ST12: My new friends were fed up. They said, “Your mom’s O.K. But we’re not allowed to come and play any more.”

TT12: 새 친구들은 잔뜩 야단맞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 “네 엄마는 정말 좋으셔. 하지만 이제부터 너의 집에 놀러 가지 말래.”

위 예는 주인공의 친구들이 주인공의 집에 놀러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엄마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화를 낸 후의 장면이다. 이에 대해서 친구들은 “fed up”이라고 하는데, 번역에서는 “잔뜩 야단 맞”는 것으로 바뀌어 구두적 프로세스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ST13: They liked our pets. They met Gran. Mom behaved well.

TT13: 친구들은 우리 집 애완동물을 좋아했어. 우리 할머니도 만나봤지. 엄마는 아주 잘 대해 주셨어.

ST의 글을 보면 친구들이 주인공의 집에 놀러 왔을 때 엄마가 문제를 일으

키지 않고 행동을 잘 했다는 뜻이다. “behave”는 보통 어른보다는 어린 아이한테 쓰는 말인데, 이 책에서는 마법사 엄마가 평소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TT에서는 엄마가 주인공과 친구들에게 잘 대해 주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이는 TL 문화의 관행에 더 맞춘 번역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 특히 부모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여겨 표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ST14: At first the other kids gave me funny looks when she took me to my new school.

TT14: 학교에 간 첫날, 우리 엄마는 나를 빗자루에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줬어. 다른 아이들이 우리를 신기한 듯이 봤지.

TT에서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ST에 없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 ST의 글만 보면 다른 아이들이 왜 주인공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림을 보면 주인공이 엄마의 빗자루에 함께 타고 학교에 가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TT에서는 그림의 내용을 글에 첨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마법사』⁴⁾



4) 이 그림은 출판사 어린이작가정신의 허가를 받아 게재한 것임(이메일 서신 2016.3.8.)

ST15: Mom beat all the fire engines!

TT15: 그때 우리 엄마가 먹구름을 끌고 왔어.

위는 학교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재빠르게 행동해서 소방차를 앞질렀다는 내용이다. 그림을 보면 주인공의 엄마가 먹구름을 끌고 와서 소방차를 끄고 있다. 그러나 ST의 글에서는 엄마가 소방차를 능가했다고만 나온다. TT에서는 물질적 프로세스 “끌고 왔다”가 먹구름이라는 목표(Goal)와 함께 사용되어 그림의 내용을 명시화하였다.

<평가어>

ST16: The trouble with Mom's the hats she wears.

TT16: 우리 엄마 모자는 정말 못 말릴 만큼 요란해.

ST에는 엄마의 모자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므로 그림을 보아야 알 수 있다. 물론 “trouble”이란 단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나 그 이상의 정보는 그림에서만 보인다. TT에서는 모자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정말 못 말릴 만큼 요란해”라는 외양평가(appreciation)가 첨가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외양평가는 사물의 외양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어의 태도를 다시 분류한 하위 카테고리이다. 태도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평가(affect), 다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행위평가(judgement), 사물의 외양에 대해 평가하는 외양평가(appreciation)로 나뉜다.

ST17: Mom said he's staying put until he stops going to the pub!

TT17: 엄마는 아빠가 술을 끊을 때까지 간혀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

TT에서는 ST에서는 중립적으로 쓰인 “stay put”를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간혀 있다”는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번역서에서는 “딱 화를 냈어”, “무척 슬퍼했어”, “잔뜩 야단맞고” 등의 밑줄 친 말과 같이 강도조절의 평가어가 빈번히 사용되어 해당 서술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연결 관계>

ST18: We all went wild! Then their mothers turned up and ruined everything.

TT18: 우리는 맘껏 놀았지. 하지만 부모님들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 놓았지.

위 예에서는 ST의 “Then”이 TT에서는 “하지만”으로 바뀌었다. “Then”의 사전상의 정의에서는 역접의 의미가 없으나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then>) TT에서는 역접의 의미로 변경되어 아이들이 실컷 놀고 있는데 부모들이 나타나서 망쳤다는 내용을 대조시키고 있다.

<지시 대상 번역>

아래 표에서는 번역서에서 주인공의 엄마를 지시하는 표현을 나타냈다. ST에서는 “Mom” 혹은 “she”로 표현되었고, TT에서는 모두 “엄마”로 표현되었다. TT에서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한국어에서는 아이가 엄마를 대명사로 지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TL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표 7>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마법사』에서 “Mom”의 번역

분류	ST	TT
“Mom”/“엄마”	7	10
대명사	3	0
생략	0	0
계	10	10

위 분석을 기반으로 번역서의 의미를 ST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험적 의미에서는 프로세스 변경(“떡구름을 끌고 왔어”)이나 상황 첨가(“빋자루에 태우고”)에 따라 TT의 글에서 내용이 첨가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그림이 더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그 외 프로세스 변이 중 “새 친구들은 잔뜩 야단맞고 나서”나 “엄마는 아주 잘 대해 주셨어”는 TL 문화의 관습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파워 관계가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 경험적 의미의 변화에 따라 이야기 속 주인공 간의 관계적 의미도 역시 달라진 것이다. 관계적 의미 중 해설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정말 못 말릴 만큼 요란해,” “간혀 있을 거라고” 등의 평가어를 통해 해설자의 생각이 직접 표현되었고, 이에 따라 그림의 내용이 글에서 더 드러나게 되었다. 문맥적 의미에서는 연결 관계를 변경하거나 첨가하여 독자가 더 원활히 글의 흐름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확장 그림책 세 권의 번역서에 나타난 번역 변이를 체계기능언어학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이 중 그림과 관련된 변이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 권의 번역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참여자, 프로세스, 상황을 포함하여 동사성 체계의 변이가 나타나 경험적 의미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서법, 양상 변이 및 평가어 변이 등으로 관계적 의미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중 서법 변경은 『내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에서 빈번하게 보였는데, TL의 관행에 따른 변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멋대로 공주』에서 공주의 제안이 왕자들의 의무로 양상이 변경된 것이나, 세 권의 번역서에서 평가어가 첨가된 경우들은 해설자와 독자의 관계에서 볼 때 어린 독자를 의식하여 이야기를 더 친절하게 알려 준 경우이다. 그 외 연결 관계의 첨가 및 변경으로 문맥적 의미에서 문장 및 절 간의 연결 관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내멋대로 공주』에서는 이 이야기의 핵심 어휘인 “결혼”의 어휘 반복이 ST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아동 독자의 읽기 능력을 고려하여 이야기의 연결을 더 쉽게 알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이의 결과 TT의 글을 ST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세 권의 번역서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ST의 글에 비해 그림의 내용을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엄마는 못 말리는 마법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다. 둘째, 번역서의 글에는 ST보다 평가어가 첨가되거나 강도가 강해져서 해설자의 생각이 더 명시적으로 드러났고, 이야기의 연결 관계 역시 더 분명히 나타났다.

이에 따라 ST에서는 해설자가 다소 담담하게 시치미 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 TT에서는 해설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ST의 독자는 글의 내용에 대해 그림을 보면서 간극을 메우면서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데, TT 독자는 ST 독자보다는 글만을 통해서도 이야기 전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확장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나머지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구성하는 재미가 감소된다. 글과 그림 사이의 긴장 관계를 퍼즐 맞추듯 해결해 나가는 일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림책의 언어적 코드와 시각적 코드의 상호 작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인 바, 향후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13) 「이코노텍스트로서의 어린이 그림책 번역: 삽화의 현지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7-29.
- 김미라 (2012) 「한영 단편소설 번역에 있어 ‘이끔부(theme)’의 선택이 독자에 미치는 영향」,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서울: 동국대학교.
- 성승은 (2013) 「일한 번역그림책의 이름 번역 추이와 성인의 이데올로기: 영한 번역그림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103-123.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 이성엽 (2014) 「그림책 번역 -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105-129
- 이창수 (2009) 「영어관광안내서의 평가어 비교분석 연구」, 『영미연구』 20: 187-205.
- 최성희 (2013) 「뉴스위크 번역을 통한 식민 담론의 전복」, 『번역학연구』 14(1): 355-387.
- 현은자, 강은진, 변윤희, 심향분 (2008)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 마루벌.
- Baker, Mona (1991)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utt, David, Rhondda Fahey, Susan Feez, Sue Spinks and Colin Yallop (2000)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Sydney: National

- Center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Macquarie University.
- Español Castellà, Nues (2008) 'When Tante Patent en de grote Sof found Un vikingo en el jardín(A Viking in the Garden)', in Maria González Davis & Ritta Oittinen (eds) *Who's Story? Translating the Verbal and the Visual in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71-84.
- Fischer, Marin (2008) 'Changes and Exchanges. Variations of Illustrations in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in Maria González Davis & Ritta Oittinen (eds) *Who's Story? Translating the Verbal and the Visual in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97-111.
- Frank, Helen (2007) *Cultural Encounters in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Manchester: St. Jerome.
- Halliday, Michael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Melbourne and Auckland: Edward Arnold.
- House, Juliane (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Ippolito, Margherita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Illustrations: Translating Beatrice Potter's Little Books into Italian', in Maria González Davis & Ritta Oittinen (eds) *Who's Story? Translating the Verbal and the Visual in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85-96.
- Lewis, David (2001) *Reading Contemporary Picturebooks: Picturing Text*,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ópez, Marisa Fernández (2006) 'Translation Studies in Contemporary Children's Literature: A Comparison of Intercultural Ideological Factors', in Gillian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98-109.
- Martin, James and Peter White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cMillan.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ikolajeva, Maria and Carole Scott (2006) *How Picturebooks Work*, New York: Routledge.
- Nikolajeva, Maria (2005) *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An Introduction*, Lanham: Scarecrow Press.
- Oittinen, Riitta (2008) 'Audiences and Influences: Multisensory Translations of Picturebooks', in Gillian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3-18.
- O'Sullivan, Emer (2006) 'Translating Pictures', in Gillian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13-121.
- Shih, Chung-ling (2008) 'Corpus-based Study of Differences in Explicitation between Literature Translations for Children and for Adults', *Translation Journal*: 12(3). URL:[http://accurapid.com/journal\(ISSN:1536-7207\)](http://accurapid.com/journal(ISSN:1536-7207))
- Stolze, Radegundis (2003) 'Translating for Children-World View or Pedagogics?', *Meta* 48(1-2): 208-221.
- Thompson, Geofee (201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Abstract]

A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 Analysis of 'Enhancing' Picturebook Translation

Sung, Se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picturebooks, words and pictures work together to construct narrative. Sometimes they tell the same story, but other times they fill each other's gap. They can also give alternative information or contradict each other. This paper observes translation of 'enhancing' picturebooks, where images support words for the reader to construct narrative. Readers employ both words and images to make sense of the story. Explication in translation of words in picturebooks can thus hamper the reader by explaining what is found in pictures. Yet, explication is often said to be prevalent in children's transla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ranslations of enhancing picturebooks based o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for analysis of shifts between the words in the STs and the TTs, to see if the shifts have any influence on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words and images, including explication in particular.

The translations showed shifts in transitivity system which resulted in changes in the experiential meaning between the words in the STs and the TTs. The translations also revealed shifts in appraisals, with the characters' behaviors and thoughts, not mentioned in the STs, verbally expressed. Intensifiers were often added to those expressions. Finally the translations had clearer textual flow, with textual additions and changes.

Such shifts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words in the TTs explicates the pictures compared to the STs, explaining what the reader can already see from the pictures. Second, the translations showed more appraisals

than in the STs, rendering the thoughts of the characters more explicit in the translations. Given the interaction between words and images in picturebooks, explicitation in the words may deny the reader the delight of constructing stories with words and images together.

▶ Key Words: 'enhancing' picturebook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explicitation, translation shifts

성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조교수

michsung@hotmail.com

관심분야: 아동문학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6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6일